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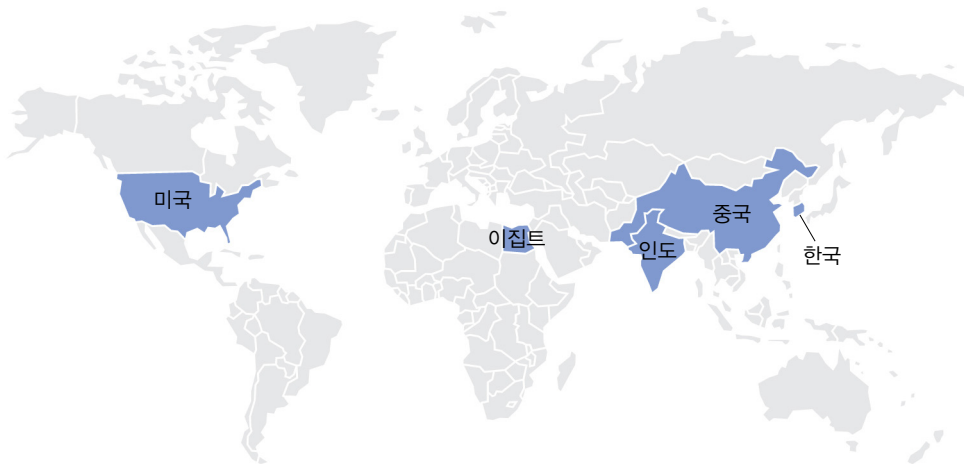
## 해외곡물시장 뉴스





# 해외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북아메리카	아시아
<p><b>미국</b> 미국산 옥수수 수분기 돌입하면서 작황 이상적</p>	<p><b>중국</b> 중국정부는 주간 옥수수판매 악화로 옥수수 가공업자 지원 계획 중국, 2014년 여름곡물 수확량 전년대비 3.6% 증가</p> <p><b>한국</b>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수입할당량 확대는 비이상적 한국, 쌀시장 개방결정 지연 한국, 내년부터 쌀 수입제한 해지 한국, 내년부터 쌀 수입제한 해지적용 발표</p> <p><b>인도</b> 인도전역이 몬순영향권 안에</p>
아프리카	
<p><b>이집트</b> 이집트, GASC, 루마니아 및 러시아산 밀 240,000톤 구입</p>	

## 1. 미국

### ■ 미국산 옥수수 수분기 돌입하면서 작황 이상적

지난 주 미국의 풍부한 토양수분 및 온화한 기후로, 미국산 대두작황은 20년래 최상이며 옥수수는 15년래 최상수준이다. 월요일에 발표된 USDA 주간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대두의 72%, 옥수수의 75%가 좋음/아주좋은 등급에 속하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와 일치하다고 한다. 또한, 옥수수생장이 수분기에 접어들면서 이상적 작황전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옥수수는 수분기 동안 다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적 작황에 따른 풍부한 수확전망으로 지난 몇 주간 곡물선물가격은 하방압력을 받았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및 노스다코타 등 주요 옥수수 생산지역의 좋음/아주좋은 등급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네브래스카 및 캔자스 지역은 평균을 하회한다고 한다. 대두의 경우도 노스다코타는 80%가 좋음/아주 좋은 등급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미네소타 및 캔자스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한다. USDA에 따르면, 봄밀의 70%가 좋음/아주좋은 등급으로 전주대비 변동이 없으며, 겨울밀은 31%가 좋음/아주좋은 등급으로 전주대비 1%포인트 상승하였다고 한다. (2014.7.8.)

## 2. 중국

### ■ 중국정부는 주간 옥수수판매 악화로 옥수수 가공업자 지원계획

중국의 금주 옥수수판매는 높은 가격으로 인한 입찰수요 감소로 감소추세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판매활성화 지원을 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옥수수 가공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국가비축분 옥수수물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요일, 국무원은 북동부지역 주요 재배지역의 타이트한 저장용량을 완화하기 위해 옥수수 가공업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옥수수 생산지역인 헤이룽장 성은 국가비축분 옥수수를 구매하는 옥수수 가공업자들에게 톤당 100위안(16.11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옥수수 가공업은 옥수수전분에서부터 에탄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정부는 올해 50백만 톤 저장가능한 새로운 저장시설도 증축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년동안 풍부한 국내산 옥수수 수확 및 예상보다 둔화된 수요로 90백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비축해왔다. 금주 중국정부는 두 건의 경매에서 옥수수 981,055톤을 평균가격인 톤당 2,238위안(360달러)에 판매했으며, 이는 전체 지원물량 4,996,681톤의 19.6%에 해당한다고 한다. (2014.6.27.)

### ■ 중국, 2014년 여름곡물 수확량 전년대비 3.6% 증가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올여름 곡물수확량은 높은 수율 및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대비 3.6% 상승했다고 한다. 중국의 총 여름곡물 수확량은 136.59백만 톤으로 곡류 125.8백만 톤을 포함하며 여름곡물의 대부분은 겨울밀이라고 한다. 중국의 싱크탱크(think-tank)는 금년 겨울밀 수확량이 117.6백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에는 보조금, 높은 정부수매가 등 농가들을 위한 중국정부의 유인책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2014.7.14.)

## 3. 한국

###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수입할당량 확대는 비이상적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내년 쌀 수입할당량 확대를 통해 쌀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쌀 수입정책 발표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는 정부가 다수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주요 쌀 수출업자들도 한국의 수입정책 결정에 대해 주도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WTO와의 협상을 통해 쌀 수입을 일정할당량까지 감축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수입할당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5년 곡물수입할당량 51,000톤에 비교하여 금년 수입할당량은 408,700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수입정책은 금년 말에 만기될 예정이다. 당월 초, 한국정부는 WTO의 쌀시장 개방압력을 완화하기 위

해 수입제도를 수입할당제도에서 고관세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일부 농가 및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그룹은 한국은 새로운 수입제도하에서 수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WTO 반대론자들은 고관세제도는 중국적으로 주요 쌀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2014.6.25.)

### ■ 한국, 쌀시장 개방결정 지연

한국은 농가 및 대중들과 쌀시장 개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결정을 보류 중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지원부 통상차관보에 따르면, 원래 6월에 결정되기로 했었던 쌀시장 개방정책 결정은 국회 공청회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정부 공무원에 따르면, “쌀시장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어떠한 결론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20년간 협상이 올 연말 만기도래함에 따라, 더 많은 국가에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수입허용물량(Quota) 증가나 수입허용총량 확대정책(Cap system)보다 고관세정책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은 고관세로 인해 쌀 수입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더 이상 낮은 관세로의 정책변화 가능성도 막게 될 우려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의 높은 쌀 수입량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14.6.30.)

### ■ 한국, 내년부터 쌀 수입제한 해지

한국은 내년 2015년부터 적용되는 쌀에 대한 수입제한 해지 및 고관세 체제 도입계획을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모여 내년부터 적용되는 쌀 수입정책에 대한 합동발표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WTO와의 20년간 쌀 수입물량 제한협정의 2014년 만기예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곡물에 대한 주변국들의 시장개방 압력도 지금의 결과에 한 몫을 했다. (2014.7.14.)

## ■ 한국, 내년부터 쌀 수입제한 해지적용 발표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쌀수입 제한을 해지하고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금요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전환은 고관세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체제전환으로 인해 단기간 내 쌀수입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와의 20년 쌀수입 제한제도 협상 2014년 만기로 예전부터 예기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주요곡물 시장개방 압력도 체제전환에 한 몫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요일 발표에서 “쌀시장은 WTO에 따라 최대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언론보도에서 그는 관세수준은 300~500%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국내 쌀가격과 수입 쌀가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4.7.18.)

## 4. 인도

### ■ 인도전역이 몬순영향권 안에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몬순이 인도전역을 덮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상기간보다 이를 늦은 시작으로 평균강우량을 하회하는 강우가 전망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장맛비는 북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의 쌀, 옥수수, 대두, 면화 등 주요 여름작물의 파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6~9월 시즌시작 이후 부진한 강우로 5년래 첫가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인도에서 강우는 전체경제 약 2조달러의 약 14%를 차지하는 농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억 인구의 2/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작년 몬순은 예정보다 근 한 달 일찍 시작되어 사상최고치의 곡물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4.7.17.)

## 5. 이집트

### ■ 이집트 GASC, 루마니아 및 러시아산 밀 240,000톤 구입

이집트 공영무역기관인 GASC는 8월 11~20일 선적분 루마니아 및 러시아산 밀 240,000톤을 구매했다. GASC의 부의장 마그다 압델파타에 따르면 자세한 구매정보는 다음과 같다: 루이 드레퓌스로부터 루마니아산 밀 60,000톤, 퇴퍼(ADM 독일)로부터 루마니아산 밀 60,000톤, 니테라로부터 러시아산 밀 60,000톤, 카길로부터 루마니아산 밀 60,000톤. GASC에 따르면 톤당 비용 및 화물비용은 평균 262.81달러라고 한다. 자세한 가격은 다음과 같다: 루이 드레퓌스로부터 루마니아산 밀은 톤당 FOB 251.87달러에 National Navigation company로부터의 톤당 화물비용 10.10달러, 퇴퍼로부터 루마니아산 밀은 톤당 FOB 252.75달러에 National Navigation company로부터의 톤당 화물비용 10.10달러, 카길로부터 루마니아산 밀은 톤당 FOB 252.50달러에 Mina Shipping으로부터의 톤당 화물비용 10.85달러, 니테라로부터 러시아산 밀은 톤당 FOB 252.39달러에 Venus로부터의 톤당 화물비용 10.70달러. GASC는 이전 회계연도인 2013/14년에 모하메드 무르시가 밀 5.46백만 톤을 구매한 이후 이번이 26번의 입찰발행이라고 한다. (2014.7.2.)